







How Deep is Your, 2003

Julianne Swartz creates site-specific sculptural interventions in unusual architectural spaces. In many of her works, Swartz has produced provocative portals that distorted the spaces visible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by inserting lenses, mirrors, and PVC pipes into these holes. She often contemplates and examines connectivity or the interruption of a continuum in her works. Swartz's installations encourage an acknowledgement of our relationship to our body and its surroundings.

can You Hear Me?, 2004>: A tube mounted to the exterior of The Sunshine Hotel, created an aural and visual communication conduit between the 2nd floor lobby and the street below. At the time of this commission, The Sunshine Hotel was the last remaining Single Room Occupancy facility for homeless men in New York City's Bowery area. The tube used a periscope-type mirror system and the natural coustics of PVC pipe to transmit image and sound. This enabled residents of the hotel and passersby's on the street below to engage in a private, face-to-face conversation over the distance of 9m.

chow Deep is Your, 2003>: An amalgamation of two pop songs from the 70's, How deep is your Love by the Bee Gees and Love by John Lennon, were acoustically transmitted through 122m of tubing running throughout the museum. Starting in the basement, the tubing traversed hallways and stairwells on two floors of the building. At several points along the tube's route, intentional 'leaks' gave way to private listening opportunities. Two floors above the basement, the sound that had traveled through the tubing emitted from a funnel hung in the gallery space. Leaning down to investigate, the viewer could put their head in the funnel and hear the nostalgic music resonating from a distant location.

쥴리안 스와츠는 일상적이지 않은 현장이나 건축공간에 개입하는 특정 장소성 조각물을 만든다. 스와츠는 다수의 작품에서 렌즈와 거울, PVC파이프를 구멍에 넣어 다른 반대편의 벽에서도 그 공간을 볼 수 있도록 호기심을 불어일으키는 장치를 제작해왔다. 그녀는 보통 연속적인 것에 대한 장애 또는 그것의 연결성을 관찰하고 시험한다. 스와츠의 설치작은 우리의 몸과 그 주변의 관계를 인지하도록 고무시켜 준다.

〈틀립니까?, 2004〉: 선샤인호텔 외벽에 장착된 튜브 설치작업 〈틀립니까?〉는 호텔 2층 로비와 아래층의 길 사이에 청각적, 시각적 소통을 만들어준다.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당시 선샤인호텔은 뉴욕의 보워리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노숙자를 위한 시설이 남은 곳이었다. 튜브는 이미지와 소리를 전송하기 위해 잠망경 거울과 PVC파이프의 자연음향이 사용됐다. 이는 9m 간격의 호텔 투숙객과 아래 길가는 보행객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해준다.

《하우 딥 이즈 유어, 2003》: 70년대 비기스의 노래 '하우 딥 이즈 유어 러브'와 존 레논의 '러브'가 혼합된 음악은 미술관을 휘어 감고 있는 122m 길이의 튜브를 통하여 그 소리가 전달된다. 튜브는 지하 층에서 시작되어 복도와 계단을 포함한 건물의 두 층을 관통한다. 튜브의 노선가운데 몇몇 지점은 의도적으로 음악이 새어나가도록 하여 은밀한 감상의 기회를 준다. 지하층 위의 두개의 층에서 소리는 튜브를 타고 이동하여 갤러리안에 걸려있는 깔때기에 내뿜게 된다. 몸을 구부려 깔때기에 얼굴을 넣으면, 관람객은 먼거리에서 울려퍼지는 추억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출리안 스와초: 쥴리안 스와초(1967)는 아리조나 피오닉스 출생으로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활동한다. 아리조나 대학에서 학사를, 뉴욕 애난데일-온-허드슨에 위치한 바드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았다. 아트 오마이, 뉴욕 퍼블릭 아트 펀드, P.S. 1 모마, 파리의 시테 인터네셔널 데자르, 리차드 켈리 파운데이션, 로어 이스트 사이드 프린트샵, 그리고 뉴욕예술재단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곳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 스와츠는 뉴욕의 조시 비엔베누 갤러리 전속작가이며, 뉴 뮤지엄, 휘트니 미술관, 뮬러 디키아라 갤러리, P.S.1 모마 등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 현재 바드 대학교에서 조각을 가르치며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의 교수로 재직중이다.



<Terrain, 2008>: 12 channels of sound move through 208 speakers in orchestrated movements to make a landscape of gentle sound. The sound pans through 12 zones dispersed through the 279m² room, evoking a gust of wind moving through the space. To make the soundtrack for the piece, Swartz asked thirty-eight volunteers to envision a loved one, and to speak into a microphone as though whispering in that person's ear. She has woven these intimacies so that visitors heard abstract affective tones, interspersed with discernible moments of conversation.

《터레인, 2008》: 12개의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백여덟 개의 스피커를 통하여 은은한 음향의 풍경을 형성한다. 이 소리는 12 구역으로 구획된 279㎡에 이르는 공간에 마치 움직이는 바람소리처럼 울려퍼진다. 이 작품의 녹음작업을 위하여 스와츠는 서른여덟 명의 지원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사람의 귀에 속삭이듯 마이크에 말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작가는 이러한 친밀감의 음성을 설치작에 엮어 넣음으로써 관람객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화를 추상적인 톤으로 들을 수 있게 했다.





Camera-Less-Videos for Norridgewock, 2009



<Camera-Less-Videos for Norridgewock, 2009>: Lenses inside the box multiply and flip the view outside the windows they face. The video on the screen projected directly from the light and activity outside. The sculptures observe four scenes outside the Norridgewock Elementary School, from four different windows. The images are presented at the eye level of the children that gather in each area.

<The Sound of Light, 2008-9>: Original soundtracks were composed and sited to interrelate with specific objects and displays in the Jewish Museum's permanent collection. Emitted via radio signal, the sounds were only audible through one of the custom Receiver sculptures. Visitors could borrow a Receiver and hold it while walking through the exhibition. Listening to the Receiver, one could navigate the displays aurally, finding a way to a clear sound signal through areas of static and conflicting radio waves. Brightly lit signs placed in interstitial spaces through the exhibits signified zones of acoustic clarity and stated the name of the composition audible there.

〈노릿지웍의 카메라-레스-비디오, 2009〉: 창문을 향하고 있는 박스 안의 내장된 렌즈는 밖의 전경을 확대하고 화면의 아래위를 뒤집는다. 스크린에 비춰진 비디오는 건물 바깥의 빛과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투사된 것이다. 이 조각은 각각의 다른 네개의 창문에서 노리지웍 초등학교 외부에 있는 네가지의 풍경을 담고 있다. 이미지들은 각 지점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진다.

《사운도 오브 라이트, 2008-9》: 작품에 쓰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유대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영구 콜렉션과 상호 연관되도록 구성되고 설치됐다. 전파 신호를 통해 전송되는 소리들은 작가가 만든 수신기 조각물에 의해서만 들을 수 있다. 관람객들은 수신기를 빌려들고, 전시장 내를 걸어 다니게 된다. 관람객은 수신기를 듣기 위해 전파가 깨끗하지 않은 지역을 지나 좀더 분명한 소리를 찾고자 전시장을 청각적으로 탐색한다. 공간 곳곳에 배치된 밝게 빛나는 싸인들은 음향이 깨끗한 지역을 표시한다.

글: 권이선/독립 큐레이터, 편집: 박민선 기자 ***저작권은 쥴리안 스와츠에 있다.